

동금당(東金堂)

국보

과거 고후쿠지 절의 가람 중앙에는 중금당(中金堂), 동금당, 서금당(西金堂)의 세 금당이 존재했습니다(서금당은 현존하지 않음). 동금당은 쇼무 천황(701~756년)의 명에 따라 그의 고모인 겐쇼 상황(683~748년)의 병세가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726년에 건립되었습니다. 내부에는 의술의 부처로 알려진 약사여래와 그의 협시인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중앙 제단에 모셔져 있으며, 그 외의 불상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당 내부의 바닥은 녹색 유약을 입힌 타일로 덮여 약사여래가 다스리는 정유리정토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동금당은 다섯 차례의 화재를 겪었습니다. 마지막 화재가 발생한 1411년에 소실된 후, 1415년에 현재의 동금당이 세워졌습니다. 무로마치 시대(1336~1573년)의 건축이지만, 전면이 개방된 요세무네즈쿠리(우진각 형태의 구조) 형식을 취하고 짜맞춘 미테사키토쿄(三手先斗栱: 측면에서 볼 때 마름모꼴 구조가 벽에서 3열 앞으로 나와 있는 두공)를 다수 사용하는 등 고전적인 건축의 특징을 의도적으로 도입하여 나라 시대(710~794년)에 처음 세워졌을 당시의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오늘날 동금당에는 무로마치 시대에 조성된 본존 동조약사여래상, 하쿠호 시대(7세기 후반)의 동조일광·월광보살상, 헤이안 시대(794~1185년)의 목조사천왕상, 가마쿠라 시대(1185~1333년)의 목조문수보살·유마거사상, 목조십이신장상 등 일본 불교 미술의 역사적 흐름을 알 수 있는 수많은 불상들이 안치되어 있습니다.